

‘도민이 행복한 제주 만들기’ 세미나

2010. 12. 15

제 주 발 전 연 구 원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도민이 행복한 제주 만들기’ 세미나 일정

◆ 개 회 식 (14:00~14:20)

- 전체사회 : 김태윤(제주발전연구원 연구실장)
- 개 회 사 : 양영오(제주발전연구원장)
- 축 사 : 허향진(제주대학교 총장)

◆ 주제발표 (14:20~15:50)

- 사회자 : 박경숙(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장)

【제1주제】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 승자 독식 시대를 넘어 우정과 환대의 시대로 -

- 발표자 : 조한혜정(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제2주제】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결정요인에 대해

- 발표자 : 강창민(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제3주제】 인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음악

- 발표자 : 권오연(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강사)

◆ 휴 식 (15:50~16:10)

◆ 종합토론 (16:10~17:10)

- 토론자 : 박경희(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토론자 : 조성윤(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토론자 : 양성철(중앙일보 기자)
- 토론자 : 이선화(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
- 토론자 : 김정희(제주대학교 예술학부 교수)
- 토론자 : 이동호(제주도립교향악단 상미지휘자)

◆ 질의 및 응답 (17:10~17:30)

◆ 폐 회 사 (17:30~17:50)

< 목 차 >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 승자 독식 시대를 넘어 우정과 환대의 시대로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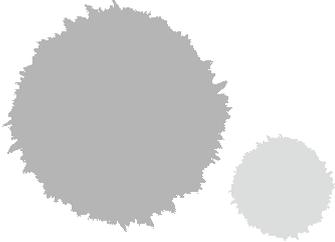
조한혜정(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결정요인에 대해 21

강창민(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인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음악 37

권오연(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강사)



제1주제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 승자 독식 시대를 넘어 우정과 환대의 시대로 -

조한혜정(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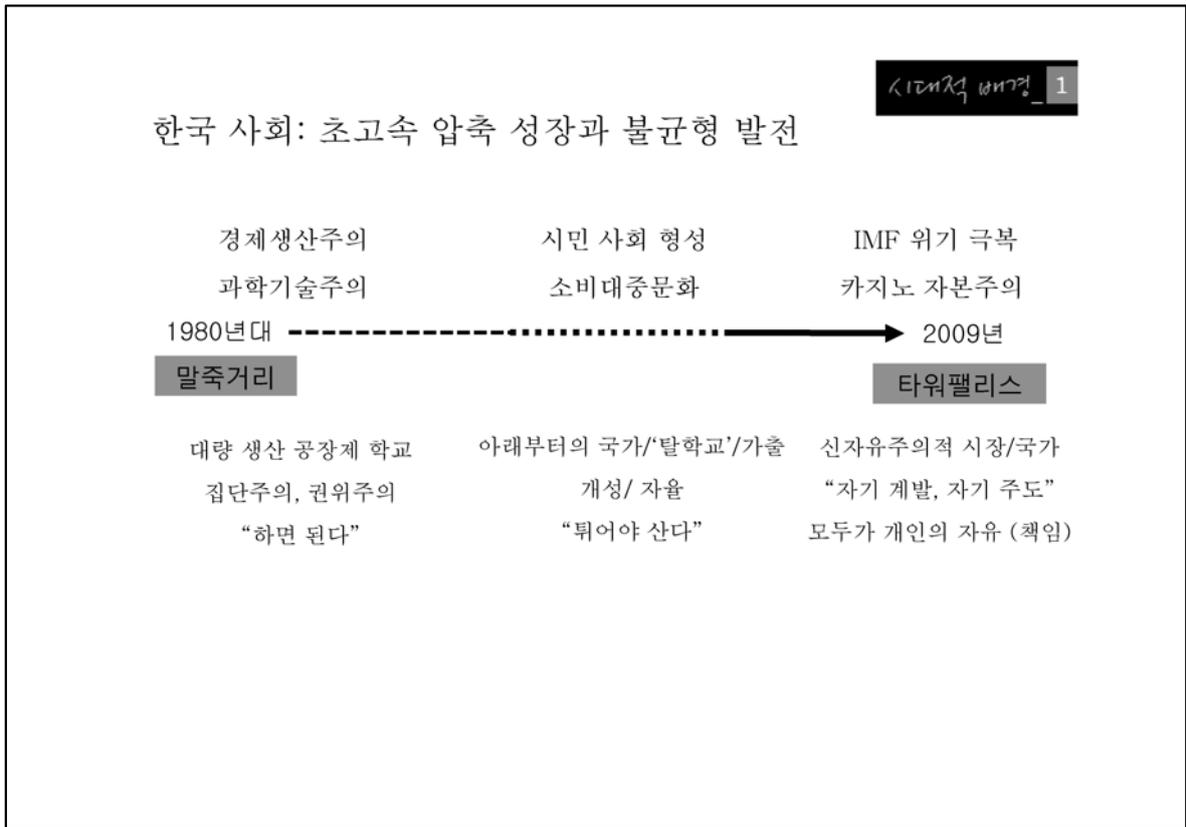
-승자 독식 시대를 넘어 우정과 환대의 시대로-

2010년 12월 15일 조한 혜정

“불확실성의 시대에 micro managing은
불안을 가중시킨다.”



질문의 차원: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시대적 배경 1

‘숨가쁜’ 정책 변화와 역사의 아이러니

1973년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1981년 과외 전면 금지 (국가와 학교 독주)

1994년 수학능력시험 도입, 세계화 담론

1995년 5.31 교육개혁안 “창의력과 수월성”

1998년 <교육비전 2002 : 새학교문화창조>

“정보 사회의 창의적 인재”

"하나만 잘하면 대학간다."

1999년 이해찬 야간자율학습 전면 금지

2000년 학부모 위험 소송 승소 (사교육 시장의 양성화)

⇒ 사교육 광풍과 사교육 시장 버블





대학의 전환: G 세대와 88만원 세대

글로벌 명품 인재, 영어 광풍, 조기유학, 어학연수, 교환학생...스펙 경쟁



▲ 2003년 고려대학교 신입생 모집 광고
국내 명문을 버리고, 세계 명문으로 발돋움 하겠다. (고려대학교 어운대 총장 외)

시장 질주 사회의 가족주의와 모성

“믿을 건 아무것도 없다”
386 세대 부모의 기획
교육주식 시장과 입시 전문가

“자녀의 성적표는 엄마의 성적표”
2009년 OECD 자료 ▶
교육 기간 내 민간 지출 1위



▲입시 설명회
외고·자사고·과학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
2009년 입시경향 분석과 대비전략



▲[SBS스페셜] ① '부모력' 자녀교육도 전략이다?

2. 교실 ethnography

『 탈식민지 시대 지식인의 글 읽기와 삶 읽기 』 1992

『 신자유주의 시대의 대학생의 글 읽기와 삶 읽기 』

2009



“한국의 현재 10대들은 ... 기성 체제에 대한 ‘저항적 태도’를 보였던 386세대나 ‘개성’과 창의를 부르짖던 1990년대 ‘신세대’와는 상당히 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새 세대가 이렇게 빨리 만들어지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 (『 교실이 돌아왔다 』 프롤로그 중에서)

교실 ethnography_2

1) 입시는 전쟁이다!

“삶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경쟁이다.”

홍성식, 한 발짝 물러서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너의 최후다!



먹이 피라미드



추락은 곧 죽음이다.

교실 ethnography 2

1) 입시는 전쟁이다! 가상의 라이벌 정하기

이종호



“너무 높은 상대는 설정하지 말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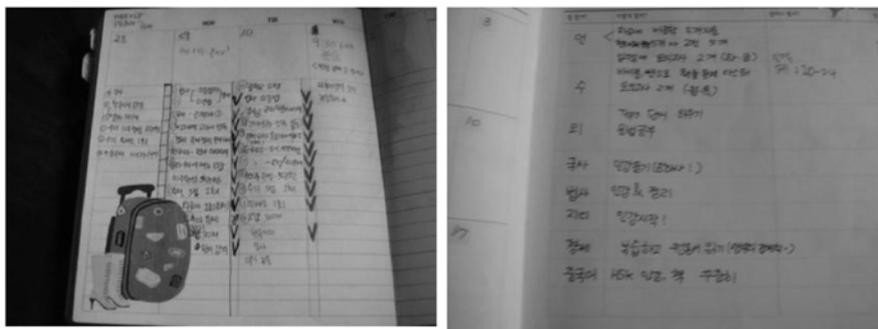


윤다연

“경쟁 상대를 상정, 야무지게”

교실 ethnography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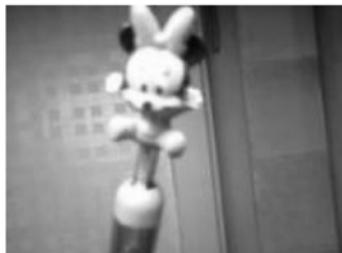
1) 입시는 전쟁이다! 효율적 자기관리와 프랭클린 다이어리
10년 목표→1년 계획→6개월 계획→1개월→1주→하루→한 시간



김유진 (사진: 고3 6월 둘째 주 하루 계획과 고 2시절 월간 계획)

교실 ethnography 2

2)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각종 전략과 위로의 소비재들
즐거운 노동으로 만들기_공책정리/학습 도구 소비



↑ 김혜진

공책정리의 달인, 필기구 얼리 어답터

← 김진명

“필통을 놓고 온 날은
야자를 안하고 그냥 집에 왔습니다.”

교실 ethnography 2

2)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팬덤
좋아하는 사람 만들기, 공부 하기 싫을 때보는 UCC



손진희

“맹자가 살아 돌아와 떠들어도,
신샘이 진리!”



윤하늬

슬슬 관찰한 뒤
귀엽다 싶은 사람으로 정한다.

마음이 동하면 매일 아침 벌떡 일어나지고
학원가는 발걸음도 가벼웠다.

◀ KBS 드라마 『꽃보다 남자』 중에서 윤하늬가 고른 한 것

교실 ethnography_2

2)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자기 조절이 가능한 연애



김소정

“그 하루에
2주 동안의 스트레스를 한방에”
“그 외의 시간엔 열공!”

오연주, 행동 하나하나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밀착

하루 30분, 이 시간에만 대화를 나눈다.
바로 옆 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실 ethnography_2

3) 키워지는 아이: 지원군은 누구?



김규리

“선생님들은 안타까워하셨다.”

3) 키워지는 아이: 귀족반

전성준

80명을 성적순: “일종의 자랑스러움과 특권의식”

고 3 개그: “그 때는 정말 좋았는데…”

“하지만 아는 것은 없었다.”

“직접적인 촉감은 없었다.”

“막연하고 공허한 일상 속”

3) 키워지는 아이: ‘자기 주도 학습’



유병호, 고3 매일매일 잤다.

“마냥 자는 아이”
+
“학원 진도 나가는 아이”



▲ 중앙일보

교실 ethnography_2

4) 키우는 주체: 시장: 학원, 책, 광고, 복덕방 아저씨들

“엄마는 계모? 아니면 기적을 내는 모성?” (김연아)
“매니저 맘은 모성에의 연상선상이다.”
“21세기 한국판 맹모삼천지교이다.”



교실 ethnography_2

4) 키우는 주체: 매니저 맘, 닦고 싶은 엄마



출처: 정글고

이영주, 모범을 보여주는 엄마

“뭔가를 알아가는 것이 즐겁지 않니?”
전적인 돌봄: 스케줄 관리, 정보관리, 고도의 심리적 동기유발

4) 키우는 주체

“할아버지의 재력+엄마의 정보력+아이의 체력”: 성공 3박자
 (+아버지의 무관심+ 동생의 희생)

양동협

혼자 알아 낼 수 없는 부차적인 입시 정보
 입시 전쟁에서 지원 사격을 해줄 사람



3. 분석

1990년대와 2009년 세대의 차이는?

- 1) 시장이 주도하는 입시 교육판: 공공성의 실종
- 돈/투자는 성적과 비례한다: “개천에서 용?”
- 생존 경쟁의 내면화(자발성): “모든 것은 전략”
 ‘투자’가 되기 않으려는 안간힘
 불안하게 하는 정보 차단 능력
- 선행학습/시나공에 길들여진 인재
 포디즘 체제에 맞는 인재(획일관리)
 새로운 질문을 묻지 못한다.
 하고 싶은 것이 없다.



영화 배틀로얄 중에서

본문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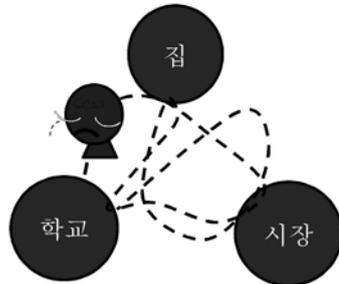
2) 21세기 지식기반, 글로벌 후기 근대의 인재는 어디?

전략가 G 세대와 ‘찌질한’ 88만원 세대: ‘20 something’

승자와 패자의 이분법; 롤러 코스트를 탄 외로운 늑대 vs 히키고모리
“아바타가 되고 싶어요” 떡실신

맥락의 고리가 끊어진 지식과 ‘재능’ (리차드 세넷)

‘표류하는 개인과 소멸하는 열정’



본문 3

2) 불확실성 시대의 모성의 딜렘마

• “내 아이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자는?”

‘불확실성’을 마이크로 매니징으로:

‘치맛 바람, 재테크 주부’ ⇒ ‘매니저 맘’

• 재산에 비례하는 타산적 효심

“시부모를 부장이나 회장님 모시듯”



2) 신자유주의 시대의 모성의 딜렘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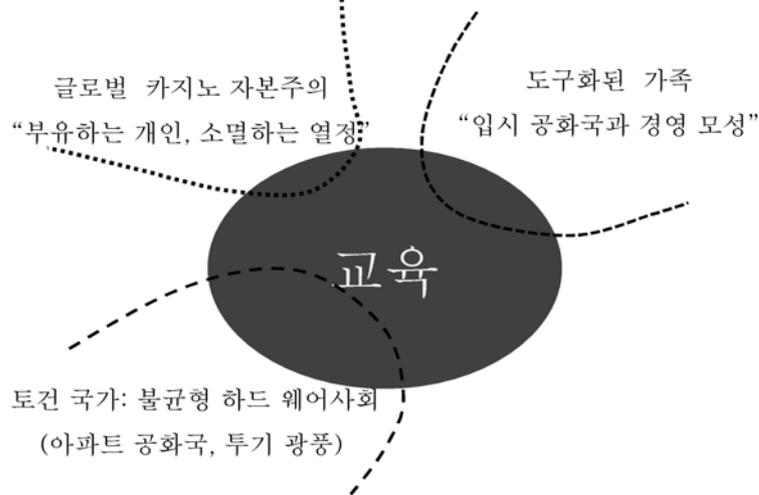
“아무도 돌보지 말라”는 시대에
돌보는 임무를 맡은 사람



“모성의 원형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아기를
지배하지 않으면서 주체화 시켜주는 힘”
‘사회적 모성’의 실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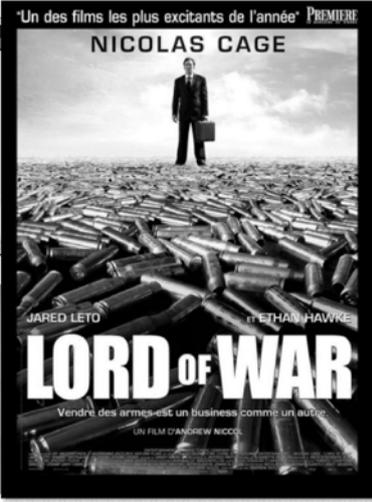
4. 나가며: ‘불확실성’은 개인이 아니라 제도로 푼다

1) 근대화, 근대성에 대한 근본적 질문



4

최근 30년: 미영 중심 신자유주의화의 시대의 끝?
N.Y. Wall Street 파동 (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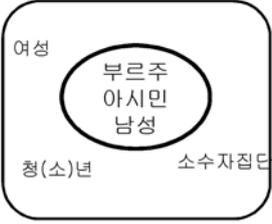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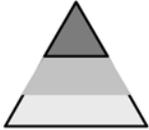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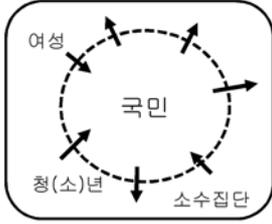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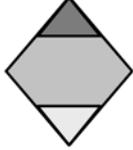
4

근대의 세 단계: “Let Live” -> “Make Live, Let Die”

근대 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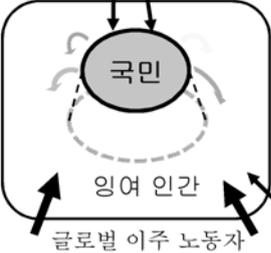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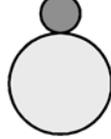



근대 성숙기

말기(신자유주의)

글로벌 인재 수급

적대관계, 세대 갈등, 그리고 외로움: 생산주의(물질 Hot)-소비주의(취향, Cool)-신자유주의(승자독식, Warm)



2) '생기 있는 삶'에 대한 질문: 근대적 큰 인물 콤플렉스, 고립된 자아관을 넘어서기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마십시오.
 대신 무엇이 당신을
 활기있는 삶을 살게 할지를 묻고
 그것을 하십시오.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당신이 활기 있는 살아있는 것이니까..."
 -하워드 터먼



누구와 함께 어떻게 살 것인가?
일, 놀이, 학습 개념의 변화: 자활노동
세대간 ‘자원’과 ‘정’의 순환: 호혜

3M->3E

‘백 만개의 일자리’
자아 실현 -> 사회적 기업



▲ 박미현 동년부엌 대표와 조리를 담당하고 있는 ‘대장금’ ‘올해 만나’(왼쪽부터)가 가게에서 활짝 웃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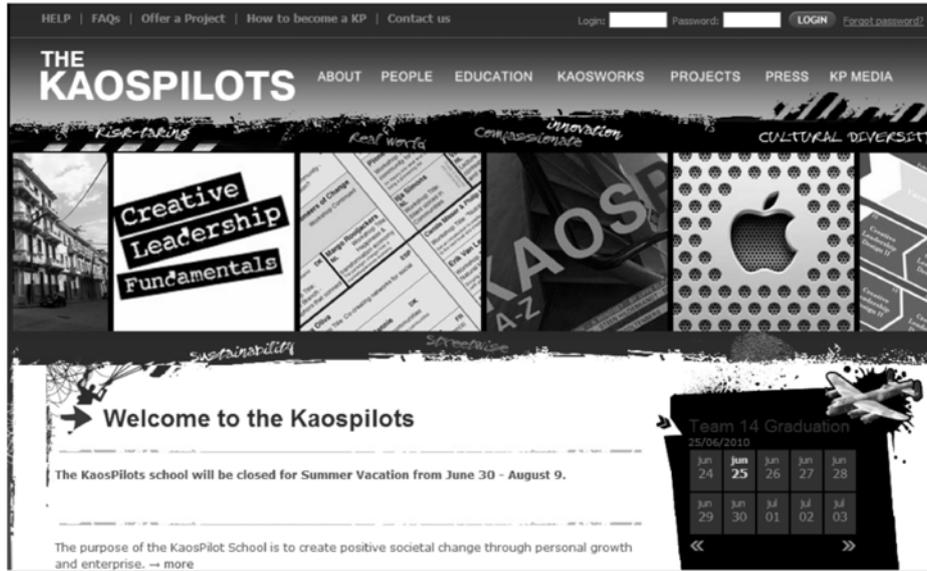


비움
나눔
키움

하자작업장학교
<http://productionschool.org/>
연구공간 수유+너머
<http://www.transs.pe.kr/>
성미산학교



도민이 행복한 제주 만들기



카오스필로츠 <http://www.kaospilot.d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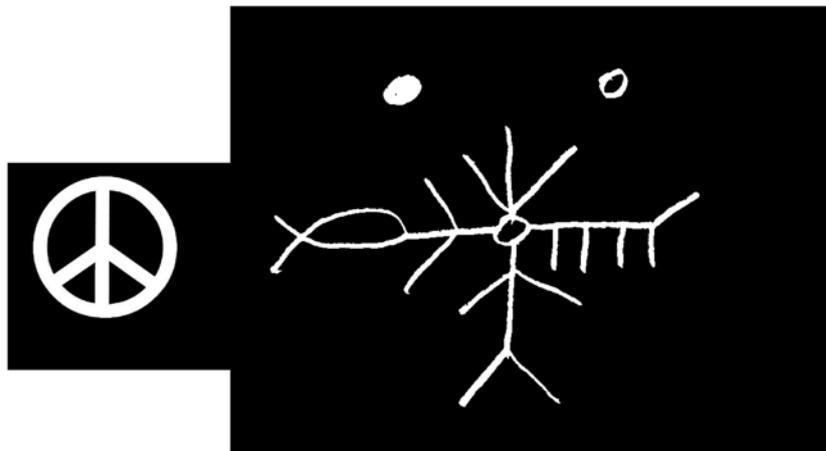


The Hub
<http://the-hub.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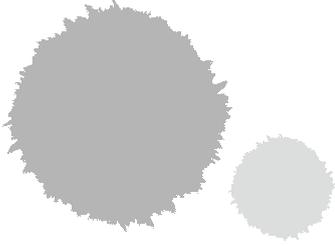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내 친구의 단골집은 어디?”
“내 장례식에 올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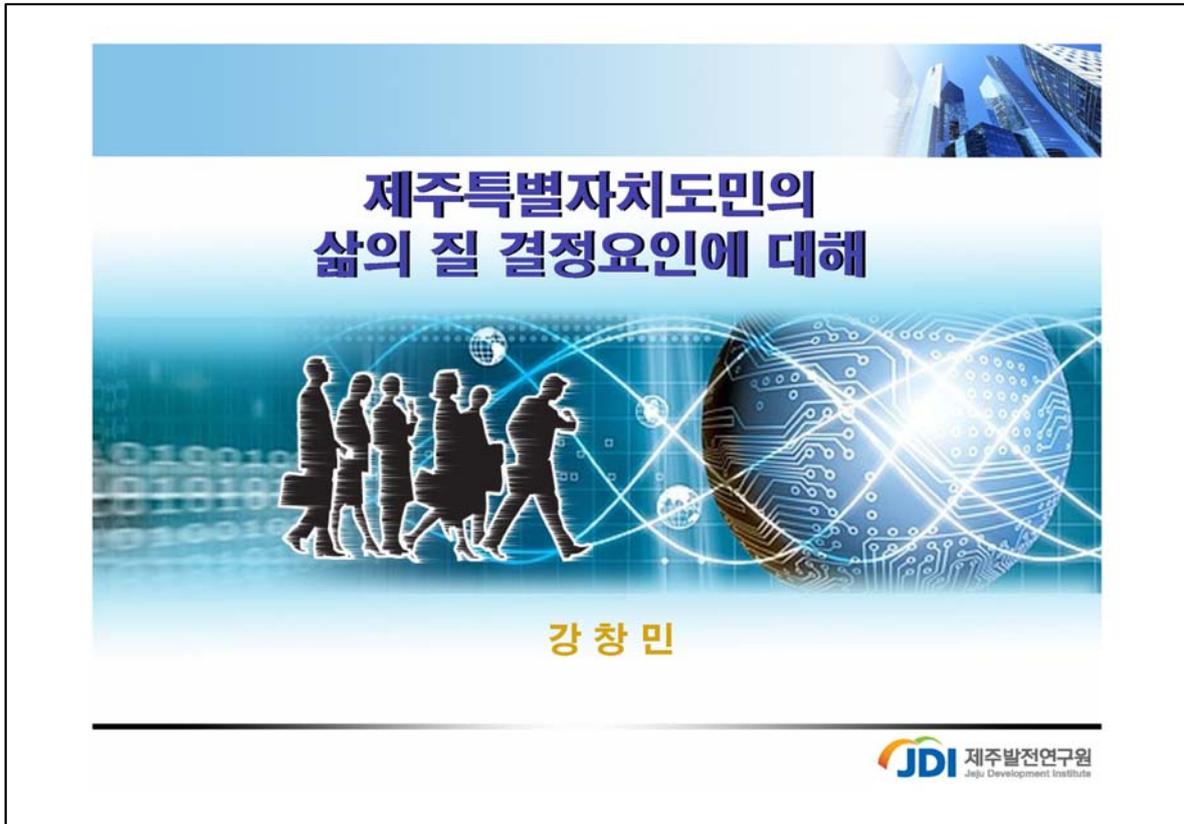


제2주제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결정요인의 대해

강창민(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목 차 JDI 제주발전연구원
Jeju Development Institute

| | | |
|------------|-------------|-------|
| I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
| II |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
| III | 이론적 논의 | |
| IV | 연구 설계 | |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의 배경

- 본격적인 지방분권화의 국제적 흐름에 따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책임 주체가 과거 중앙정부 중심에서 해당 지역의 지방정부 중심으로 변화되는 추세
- 모든 지방정부들은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
-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이 현재 처해 있는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이에 대한 수준의 정도 파악이 중요
- 제주도민의 삶의 질 평가는 많은 정책과 계획들의 최종 수혜자인 도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객관적 주관적 평가와 진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우 의미 있는 작업

1.2 연구의 목적

-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결정 및 예산편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향후 도민의 지속적 삶의 질 평가 및 진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이 본 연구의 목적

1. 서론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1 연구의 주요 내용

- 삶의 질 개념과 주요 지표를 파악하기 위한 관련 선행연구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의 객관적 삶의 질 지표 개발
-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제주도민 삶의 질 지표의 우선순위 및 가중치 부여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의 삶의 질 평가 및 진단 수행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의 삶의 질 평가를 통한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방향과 대안 제시

2.1 연구의 방법

- 국내외 삶의 질 지표 개발 현황조사 및 각종 통계자료에 대한 문헌조사
- 삶의 질 관련 지표 선정과 가중치 부여를 위한 AHP 설문조사
- 삶의 질 객관적 지표의 16개 시도 비교분석

II. 이론적 논의



1. 삶의 질의 의의

1.1 삶의 질에 대한 연구 경향

- 1920년대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여 오늘날 사회목표의 중요성을 갖는 개념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 합의된 개념은 없는 실정
- 삶의 질을 정의하는 문제는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매우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음

- 1960년대 : 사회지표운동의 일환으로 삶의 질 측정
- 1970년대 : 삶의 질 결정요인 탐색
- 1980년대 : 특정지역 사회 거주자, 노인, 병약자 등 일부 인구집단의 삶의 질이나, 또는 교육, 건강, 노동 등과 같은 삶의 부분 영역에 대한 논의로 전문화되어 가는 양상
- 2000년 이후 : 지방정부의 삶의 질 측정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음

II. 이론적 논의



1. 삶의 질의 의의

1.2 삶의 질 개념 정의

- 객관적 측면 : 인간의 만족스러운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인 삶의 조건
- 주관적 측면 : 개인의 삶이 자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내면적인 기대수준을 충족시킨다고 인지하는 정도
- 통합적 측면 : 만족과 행복의 상태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물질적 측면과 더불어 복지 또는 정신건강 요소에 의해서도 측정되는 것

| II. 이론적 논의 | | JDI 제주발전연구원 Jeju Development Institute |
|------------------------------|--|---|
| [표] 다양한 삶의 질의 개념 | | |
| 연구자 | 삶의 질의 개념 | 구분 |
| Milbrath(1978) |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인공적 자극 | 객관적 |
| Schneider(1976) | 개인 또는 사회조직이 경험하는 직접적인 복지 | 주관적 |
| Myers(1987) | 주민들이 자신의 거주지에서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생활여건 | 주관적 |
| 하혜수(1996) |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생활조건 | 객관적 |
| 임희섭(1996) | 개관적인 삶의 조건에 대한 주관적인 인지적 평가 | 통합적 |
| 이영균(1997) | 개인적 특성요인과 사회경제적, 문화, 환경적인 조건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평가 | 통합적 |
| 이원일 외(2000) | 민간의 만족스러운 생활에 영향을 주는 객관적인 삶의 조건 | 객관적 |
| 임진택(2003) | 일정한 범위내의 지역주민들이 보다 만족하고 안락한 삶의 물리적 상대나 조건 | 객관적 |
| 박성복(2003) | 생활세계역량을 바탕으로 한 정감적, 실존적 만족 | 통합적 |
| 김구(2003) | 삶의 질 평가 및 측정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환경적 요소와 물리적, 심리적 요소까지도 포괄하는 삶의 종합적 상태 | 객관적 |
| Glatzer(2006) | 객관적인 생활여건과 주관적으로 인지된 복지 | 통합적 |
| Luis · Isabel · Paula (2007) | 주민들의 생활조건에 관한 만족수준과 개인의 경험에 근거한 인지의 영향 | 주관적 |
| 송건섭(2007) | 한 공동사회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만족감과 행복감 | 주관적 |
| 권용현(2008) | 개관적인 삶의 조건에 대한 개인 또는 집단의 인지적 평가 | 통합적 |
| 조성호 외(2009) | 경제적 측면과 생활의 질 측면을 모두 포괄하여 삶의 질 정의 | 객관적 |

| II. 이론적 논의 | | JDI 제주발전연구원 Jeju Development Institute |
|---------------------------|---------|---|
| 2. 삶의 질 측정지표의 선행연구 | | |
| 2.1 객관적 지표설정 | | |
| 연구자 | 평가부문 | 세부평가지표 |
| 조성호 외 (2009) | 지역경제 | 1인당GRDP(지역내총생산/총인구), 지역경제투자비용(세출결산중경제개발비/총사업체수), 50인이상사업체수, 경제활동인구, 공장등록율, 재정자립도 |
| | 교육문화 | 문화시설현황(1천명당), 청소년수련시설, 문화예술행사당참여주민수, 교육및문화예산비중, 초중고등학교교원당학생수, 대학교입학정원수(2년제대학및4년제대학교) |
| | 교통 | 도로포장률, 고속도로&철도연장비율, 주차장확보율, 주차면당차량수(등록차량수/주차면수), 교통체중도(자동차수/포장도로연장) |
| | 주거 및 환경 | 주택보급률, 시가화면적비율, 상수도보급률, 하수도보급률, 쓰레기배출량(1천명당), 환경오염배출시설물비용(오염배출업소/인구수×10,000), 유통시설수(1천명당) |
| | 정보화 | 공무원정보화교육비율, 주민정보화교육비율, 행정컴퓨터보유현황, 행정온라인통신회선 |
| | 일반행정 | 공무원1인당주민수, 민원공무원1인당민원처리수, 총민원처리수대비제도개선주민건의민원처리비율, 공무원청렴도 |
| | 사회복지 | 인구1,000명당의사수, 인구1,000명당병상수, 보육시설확보율, 사회복지시설확보율, 기초생활수급가구비율 |
| | 사회안전 | 교통사고발생비율(교통사고건수/총인구), 범죄발생율, 범죄검거율, 화재발생률, 소방관서수, 인구1,000명당경찰관수 |

II. 이론적 논의

2. 삶의 질 측정지표의 선행연구

2.1 객관적 지표설정

| 연구자 | 평가부문 | 세부평가지표 |
|----------------------|------|--|
| 허철행 김도엽 (2000) | 지역경제 | 지방세부담액, 인구밀도, 세출결산규모, 사업체수, 사업체 고용자수 |
| | 주거환경 | 공무원1인당인구수, 상수도보급율, 평균급수량(1일), 도로포장율, 폐수배출량(1일), 주택보급율, 도로연장, 차량대수, 주차면수, 전화가입자수, 금융기관수, 시장수, 공중위생업소수 |
| | 교육문화 | 도시공원면적, 공공도서관좌석수, 극장좌석수, 문화재수, 교육기관수(초등), 학교수, 학생수 |
| | 사회복지 | 병상수, 의사수, 약국수, 복지예산액, 저소득자비율, 화재발생건수, 범죄발생건수, 교통사고건수, 소방대원수, 파출소수 |

II. 이론적 논의

2. 삶의 질 측정지표의 선행연구

2.2 주관적 지표설정

| 연구자 | 세부평가지표 |
|-------------------|--|
| 이춘호(2000) | 고장의 애항성, 향토문화, 지역발전상, 교통편리성, 환경쾌적성,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 지역 사회개발사업의 활발성, 주민숙원사업의 신속해결, 대민행정의 신속, 정확성, 공공시설과 문화 및 생활편익시설의 이용편리성 |
| 박철민·송건영 (1999) | 인구통계학적 변수, 삶의 질에 만족도(가정생활, 주거장소, 건강상태, 교육기관, 사업활동, 이웃·친구·친족관계, 여가시간활용, 관할 자치구청의 행정서비스) |
| 조명환·차경호 (1998) | 소득, 인구학적 변인(연령, 성별, 취업여부, 교육수준, 종교, 결혼과 가정.), 사회적 행동과 생활사건(사회적 접촉, 생활사건), 성격 및 신체적 요인 |
| 조성기·조연로 (1997) | 가정생활, 주거장소, 건강상태, 교육기관, 사업활동, 저축 및 자금상태, 이웃 친구 및 친족, 여가시간활용, 행정관리, 환경오염, 교통불편 및 생활편의시설, 노후대책, 생활전반 |

II. 이론적 논의



2. 삶의 질 측정지표의 선행연구

2.3 통합형 지표설정

| 연구자 | | 세부평가지표 | |
|-------------------|-------|---|--|
| | | 주관지표 | 객관지표 |
| 대전발전연구원 (2007) | 경제지표 | 경제사정, 경제사장에 대한 전망, 개인의 소비생활, 현재의 직업생활, 직업의 장래 |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직업의 유형, 하루 평균 근로시간(1인), 월평균 저축(가구) |
| | 사회 안전 | 범죄로부터의 안전, 의료시설, 서비스 | 흡연인구 비율, 의료인력수, 자동차사고 건수, 자동차차고 건수, 화재발생 건수, 구급차 기동력 |

II. 이론적 논의



| 연구자 | 평가부문 | 세부평가지표 | |
|-------------------|-----------|-------------------------|---|
| 경기개발연구원 (2009) | 객관적 지표 | 지역경제 | 1인당 GRDP, 지역경제 투자비율, 50인 이상 사업체수, 경제활동인구, 공장등록율, 재정자립도 |
| | | 교육문화 | 문화시설현황, 청소년수련시설, 문화예술행사 당 참여 주민수, 교육 및 문화예산 비중, 초중고등학교 교원당 학생수, 대학교 입학정원수 |
| | | 교통 | 도로포장률, 고속도로&철도 연장비율, 주차장 확보율, 주차면당 차량수, 교통체증도 |
| | | 주거 및 환경 | 주택보급률, 시가화면적비율, 상수도보급률, 하수도보급률, 쓰레기 배출량, 쓰레기 재활용 비율, 환경오염배출시설물 비율 |
| | | 정보화 | 공무원 정보화 교육비율, 주민정보화 교육비율, 행정 컴퓨터 보유현황, 행정온라인통신회선 |
| | | 일반행정 | 공무원 1인당 주민수, 민원 공무원 1인당 민원처리수, 총민원처리수 대비 제도개선 주민건의 민원처리 비율, 공무원 청렴도 |
| | | 사회복지 | 인구 1,000명당 의사수, 인구 1,000명당 병상수, 보육시설 확보율, 사회복지시설 확보율, 기초생활수급가구 비율 |
| | | 사회안전 | 교통사고발생비율, 범죄발생율, 범죄검거율, 화재발생률, 소방관서수, 인구 1,000명당 경찰관 수 |
| | 주관적 지표 | 8분야의 객관적 지표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 | |

III. 연구설계

1. 삶의 질 지표의 구성체계

| 구분 | 평가부문 | 평가지표 |
|-----------------------|---------|--|
| 제주도민의 삶의 질 평가체계 | 인구 | 기대수명, 이혼율, 출산율 |
| | 지역경제 | 경제활동 인구, 실업률, 1인당 GRDP(지역내 총생산액/총인구), 50인 이상 사업체 수, 재정자립도, 지역경제 투자비율, (세출결산 중 경제개발비/총사업체수) |
| | 사회·문화 | 문화시설 수(1천명당), 교육 및 문화예산 비중, 초중고등학교 교원당 학생수, 대학교 입학정원 수(2년제 대학 및 4년제 대학교), 자원봉사활동 참여 |
| | 주거 및 환경 | 주택보급률, 공원비율(녹지비율), 상수도보급률, 하수도보급률, 쓰레기배출량(1천명당) |
| | 사회복지 | 사회복지시설 확보율, 보육시설 확보율, 저소득층 비율(기초생활수급자가구 비율), 인구 1,000명당 의사수, 복지예산비율(복지예산지출/일반회계) |
| | 안전 | 교통사고발생비율(교통사고건수/총인구), 범죄발생율, 화재발생율 인구 1,000명당 소방관 수, 인구 1,000명당 경찰관 수 |

III. 연구설계

2. 자료수집 및 조사방법

2.1 자료수집

- 객관적 지표 개발을 위해서 선행연구와 2차 통계자료집 자료를 주로 활용하였고, 이를 전문가 그룹 회의를 통해 최종 객관적 지표를 선정
- 인구, 지역경제, 사회·문화, 주거 및 환경, 사회복지, 안전 등 6대 분야의 객관적 지표 개발 및 선정
- 삶의 질 관련 지표 선정과 가중치 부여 방법을 위해 관련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
- 가중치 부여를 위한 AHP 전문가 대상 설문방법을 통해 가중치를 도출
- 제주도민의 삶의 질 지표와 다른 시·도간의 삶의 질 지표와의 비교를 위해 16개 시·도의 객관적 지표 비교 분석

III. 연구설계



2. 자료수집 및 조사방법

2.2 조사방법

- 6대 분야의 객관적 지표를 개발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하는 통계 책자 및 각 기관에서 발행한 자료를 활용하여 1차적으로 객관적 지표를 발굴
- AHP 전문가 대상 설문을 통한 가중치 부여 및 객관적 지표간의 우선순위 선정
- 통계청 및 관련 시·도 등에서 발간되는 통계자료집 등을 참고하여 상호 비교하는 방식으로 선정된 객관적 지표 중심의 제주도민의 삶의 질 수준을 단순비교

II. 이론적 논의



| 연구자 | 평가부문 | 세부평가지표 | |
|-------------------|-----------|-------------------------|---|
| 경기개발연구원 (2009) | 객관적 지표 | 지역경제 | 1인당 GRDP, 지역경제 투자비율, 50인 이상 사업체수, 경제활동인구, 공장등록율, 재정자립도 |
| | | 교육문화 | 문화시설현황, 청소년수련시설, 문화예술행사 당 참여 주민수, 교육 및 문화예산 비중, 초·중·고등학교 교원당 학생수, 대학교 입학정원수 |
| | | 교통 | 도로포장률, 고속도로&철도 연장비율, 주차장 확보율, 주차면당 차량수, 교통체증도 |
| | | 주거 및 환경 | 주택보급률, 시가화면적비율, 상수도보급률, 하수도보급률, 쓰레기 배출량, 쓰레기 재활용 비율, 환경오염배출시설물 비율 |
| | | 정보화 | 공무원 정보화 교육비율, 주민정보화 교육비율, 행정 컴퓨터 보유현황, 행정은라인통신회선 |
| | | 일반행정 | 공무원 1인당 주민수, 민원 공무원 1인당 민원처리수, 총민원처리수 대비 제도개선 주민건의 민원처리 비율, 공무원 청렴도 |
| | | 사회복지 | 인구 1,000명당 의사수, 인구 1,000명당 병상수, 보육시설 확보율, 사회복지시설 확보율, 기초생활수급가구 비율 |
| | | 사회안전 | 교통사고발생비율, 범죄발생율, 범죄검거율, 화재발생률, 소방관서수, 인구 1,000명당 경찰관 수 |
| | 주관적 지표 | 8분야의 객관적 지표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 | |

IV. 분석결과



1. AHP 조사결과

• 1단계 평가 - 측정지표

• 제주도민의 삶의 질 평가의 상대적 중요도 및 가중치 : 사회복지(.256) → 안전(.220) → 주거 및 환경(.193) → 지역경제(.139) → 사회/문화(.117) → 인구(0.75) 순임

[표] 제주도민의 삶의 질 평가의 우선순위

| 평가영역 | 인구 | 지역 경제 | 사회/ 문화 | 주거 및 환경 | 사회 복지 | 안전 |
|-----------------|------|----------|-----------|------------|----------|------|
| 상대적중요도 (가중치) | .075 | .139 | .117 | .193 | .256 | .220 |
| 우선순위 | 6순위 | 4순위 | 5순위 | 3순위 | 1순위 | 2순위 |

IV. 분석결과



1. AHP 조사결과

• 2단계 평가(측정항목) - 인구

• 인구에 대한 항목의 우선순위 : 출산율(.521) → 기대수명(.328) → 이혼율(.151) 순임

[표] 인구에 대한 항목의 우선순위

| 단계 | 측정항목 | 가중치 | 우선순위 |
|--------------|------|------|------|
| 인구 (.075) | 기대수명 | .328 | 2순위 |
| | 이혼율 | .151 | 3순위 |
| | 출산율 | .521 | 1순위 |

IV. 분석결과



1. AHP 조사결과

• 2단계 평가(측정항목) - 지역경제

• 지역경제에 대한 우선순위 : 지역경제 투자비율(.197) → 실업률(.180) → 1인당 GRSP, 재정자립도(.174) → 경제활동인구(.153) → 50인 이상 사업체수(.122) 순임

[표] 지역경제에 대한 항목의 우선순위

| 단계 | 측정항목 | 가중치 | 우선순위 |
|----------------|-------------|------|------|
| 지역경제 (.139) | 경제활동인구 | .153 | 5순위 |
| | 실업률 | .180 | 2순위 |
| | 1인당 GRDP | .174 | 3순위 |
| | 50인 이상 사업체수 | .122 | 6순위 |
| | 재정자립도 | .174 | 3순위 |
| | 지역경제 투자비율 | .197 | 1순위 |

IV.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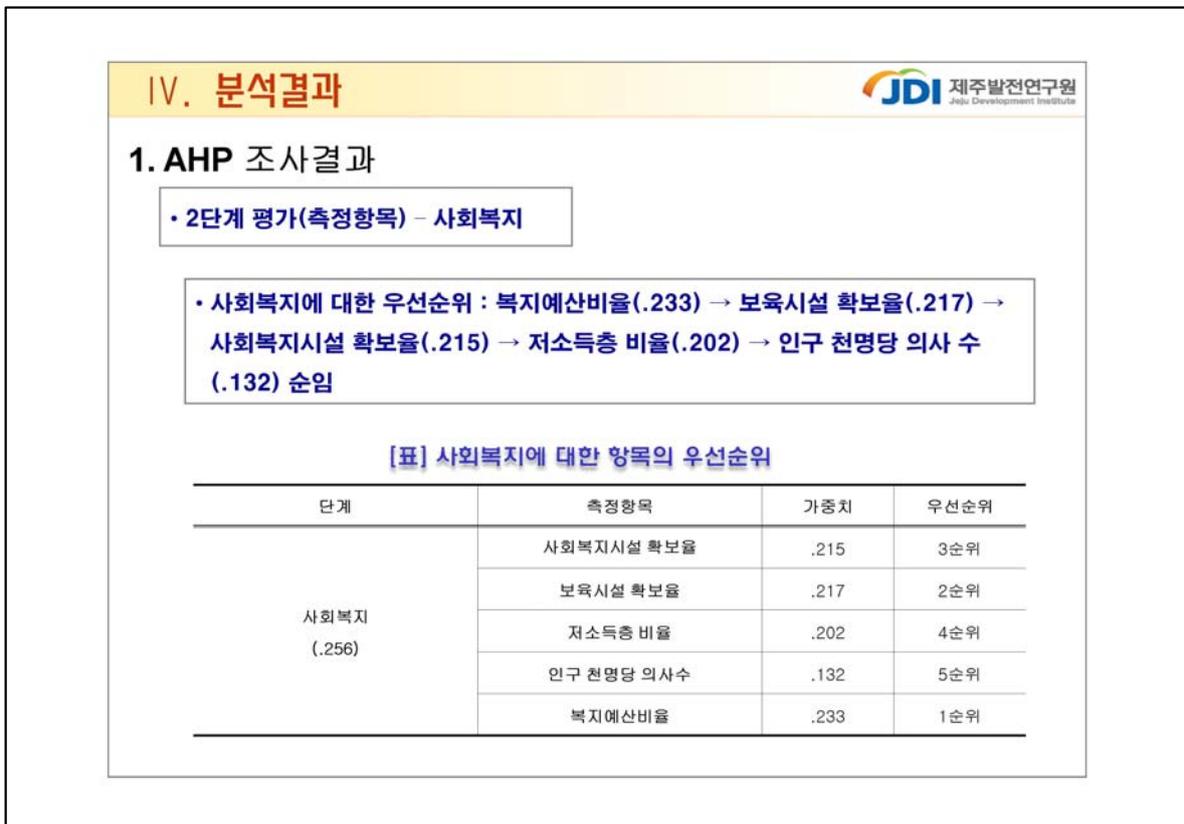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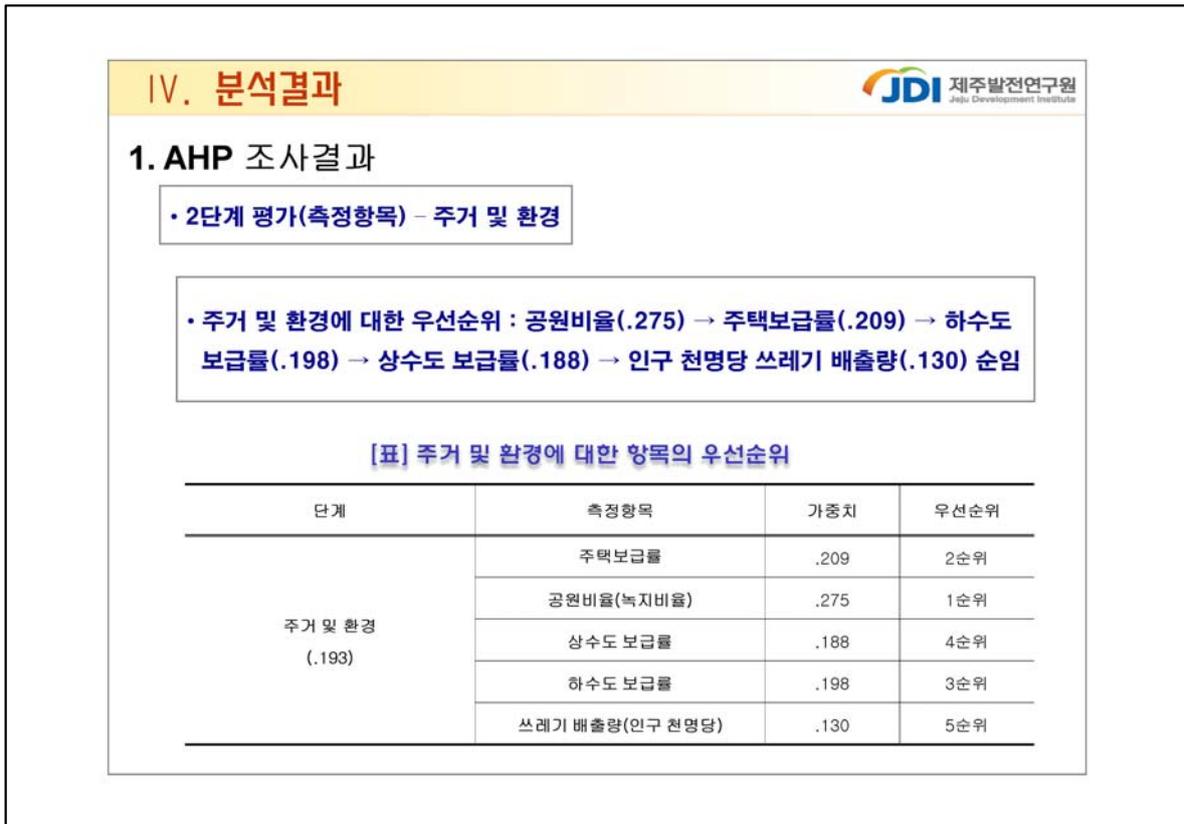
1. AHP 조사결과

• 2단계 평가(측정항목) - 사회·문화

• 사회·문화에 대한 우선순위 : 교육 및 문화예산 비중(.279) → 초중고 교원당 학생 수(.260) → 자원봉사활동 참여(.192) → 인구 천명당 문화시설수(.158) → 대학교 입학정원수(.112) 순임

[표] 사회·문화에 대한 항목의 우선순위

| 단계 | 측정항목 | 가중치 | 우선순위 |
|-----------------|----------------|------|------|
| 사회·문화 (.117) | 문화시설 수(인구 천명당) | .158 | 4순위 |
| | 교육 및 문화예산 비중 | .279 | 1순위 |
| | 초중고 교원당 학생 수 | .260 | 2순위 |
| | 대학교 입학정원수 | .112 | 5순위 |
| | 자원봉사활동 참여 | .192 | 3순위 |



IV. 분석결과



1. AHP 조사결과

• 2단계 평가(측정항목) - 사회복지

• 안전에 대한 우선순위 : 범죄발생율(.334) → 교통사고 발생 비율(.175) → 화재발생율(.173) → 인구 천명당 경찰관 수(.172) → 인구천명당 소방관 수(.146) 순임

[표] 안전에 대한 항목의 우선순위

| 단계 | 측정항목 | 가중치 | 우선순위 |
|--------------|--------------|------|------|
| 안전 (.220) | 교통사고 발생 비율 | .175 | 2순위 |
| | 범죄발생율 | .334 | 1순위 |
| | 화재발생율 | .173 | 3순위 |
| | 인구 천명당 소방관 수 | .146 | 5순위 |
| | 인구 천명당 경찰관 수 | .172 | 4순위 |

IV.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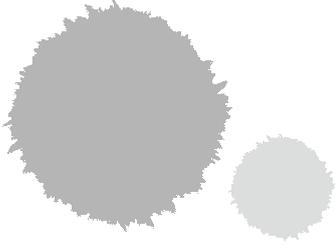
1. AHP 조사결과

• 3단계 평가 - 종합가중치 및 순위

• 전체 측정항목의 우선순위 : 범죄발생율(0.073) → 복지에산비율(0.060) → 보육시설 확보율(0.056) → 사회복지시설 확보율(0.055) → 공원비율(녹지비율)(0.053) → 저소득층 비율(0.052) → 주택보급률(0.040) → 출산율(0.039) → 교통사고 발생 비율(0.039) → 하수도 보급률(0.038) → 화재발생율(0.038) → 인구 천명당 경찰관 수(0.038) → 상수도 보급률(0.036) → 인구 천명당 의사수(0.034) → 교육 및 문화예산 비중(0.033) → 인구 천명당 소방관 수(0.032) → 초중고 교원당 학생 수(0.030) → 지역경제 투자비율(0.027) → 쓰레기 배출량(인구 천명당)(0.025) → 실업률(0.025) → 기대수명(0.025) → 1인당 GRDP(0.024) → 재정자립도(0.024) → 자원봉사활동 참여(0.022) → 경제활동인구(0.021) → 문화시설 수(인구 천명당)(0.018) → 50인 이상 사업체수(0.017) → 대학교 입학정원수(0.013) → 이혼율(0.011) 순임

| IV. 분석결과 | | JDI 제주발전연구원 Jeu Development Institute | | | | |
|------------------------------------|-----------------------|--|---------|------------|-------|-----------|
| 제주도민의 삶의 질에 대한 행정정책의 영향력 확인을 위한 연구 | 단계 | 주요활동 | 단계별 가중치 | 측정치표별 우선순위 | 복합가중치 | 전체량목 우선순위 |
| | 인구 (.075)~6순위 | 기대수명 | .328 | 2순위 | 0.025 | 19순위 |
| | | 이혼율 | .151 | 3순위 | 0.011 | 29순위 |
| | | 출산율 | .521 | 1순위 | 0.039 | 8순위 |
| | 지역경제 (.139)~4순위 | 경제활동인구 | .153 | 5순위 | 0.021 | 25순위 |
| | | 실업률 | .180 | 2순위 | 0.025 | 19순위 |
| | | 1인당 GRDP | .174 | 3순위 | 0.024 | 22순위 |
| | | 50인 이상 사업체수 | .122 | 6순위 | 0.017 | 27순위 |
| | | 재정자립도 | .174 | 3순위 | 0.024 | 22순위 |
| | | 지역경제 투자비율 | .197 | 1순위 | 0.027 | 18순위 |
| | 사회문화 (.117)~5순위 | 문화시설 수(인구 천명당) | .158 | 4순위 | 0.018 | 26순위 |
| | | 교육 및 문화예산 비중 | .279 | 1순위 | 0.033 | 15순위 |
| | | 초중고 교원당 학생 수 | .260 | 2순위 | 0.030 | 17순위 |
| | | 대학교 입학정원수 | .112 | 5순위 | 0.013 | 28순위 |
| | | 자원봉사활동 참여 | .192 | 3순위 | 0.022 | 24순위 |
| | 주거 및 환경 (.193)~3순위 | 주택보급률 | .209 | 2순위 | 0.040 | 7순위 |
| | | 공원비율(녹지비율) | .275 | 1순위 | 0.053 | 5순위 |
| | | 상수도 보급률 | .188 | 4순위 | 0.036 | 13순위 |
| | | 하수도 보급률 | .198 | 3순위 | 0.038 | 10순위 |
| | | 쓰레기 배출량(인구 천명당) | .130 | 5순위 | 0.025 | 19순위 |
| 사회복지 (.256)~1순위 | 사회복지시설 확보율 | .215 | 3순위 | 0.055 | 4순위 | |
| | 보육시설 확보율 | .217 | 2순위 | 0.056 | 3순위 | |
| | 저소득층 비율 | .202 | 4순위 | 0.052 | 6순위 | |
| | 인구 천명당 의사수 | .132 | 5순위 | 0.034 | 14순위 | |
| | 복지예산비율 | .233 | 1순위 | 0.060 | 2순위 | |
| 안전 (.220)~2순위 | 교통사고 발생 비율 | .175 | 2순위 | 0.039 | 8순위 | |
| | 범죄발생율 | .334 | 1순위 | 0.073 | 1순위 | |
| | 화재발생율 | .173 | 3순위 | 0.038 | 10순위 | |
| | 인구 천명당 소방관 수 | .146 | 5순위 | 0.032 | 16순위 | |
| | 인구 천명당 경찰관 수 | .172 | 4순위 | 0.038 | 10순위 | |





제3주제

인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음악

권오연(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강사)



인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음악

권오연(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강사)

1. 들어가는 말

음악이란 무엇인가? 아주 쉬운 것 같으면서도 막상 대답하려면 쉽지 않은 질문이다. 그러나 음악이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는 그 어떤 것이라고 대답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긍을 할 것이다. 아마 이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쉬운 대답일 것이다. 그러나 음악을 듣는 사람의 입장 뿐 아니라 음악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음악은 감정 뿐 아니라 인간의 생각을 표현하는 예술매체라 할 수 있다. 즉, 음악을 만드는 사람은 듣는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전달하고 듣는 사람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한다는 의미에서 음악은 의사소통 수단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음악은 국경과 인종과 시대를 초월하는 "언어"라고 말하곤 한다. 하지만 음악을 듣고 즐기는 일반사람들의 경우는 그저 음악은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피곤할 때 긴장을 풀어줘서 이완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심심할 때 무료함을 달래주고, 운동할 때 좀 더 신나게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존재로 생각할 것이다. 영국의 심리학자 슬롭보다와 오닐 (John A. Sloboda & Susan A. O'Neill, 2006)은 음악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개인적 활동의 어떤 영역에서 어떤 기능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약 30-60세의 영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연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표 1>에서와 같은 다양한 개인적 활동에서 다양한 음악의 기능을 활용하며 음악과 함께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음악에 있는 다양한 기능과 활동을 보고한 응답자 비율

(단위: 명)

| 음악의 기능들 | | 일상생활의 개인적 활동들 | |
|--------------------|----|---------------------|----|
| 지나간 사건들의 회고 | 50 | 잠잘 때 | 6 |
| 영적 경험 | 6 | 목욕할 때 | 4 |
| 시각적 영상 떠올림 | 2 | 운동할 때 | 4 |
| 흥분/소름/전율 | 10 | 노래 따라 부르기 위해 | 6 |
| 기쁨/즐거움 유발 | 6 | 책상에서 공부할 때 | 14 |
| 분위기를 좋게 함 (분위기 변화) | 16 | 집안일 할 때 | 22 |
| 눈물/카타르시스/이완 | 14 |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 2 |
| 흥분유발 | 2 | 운전/달리기/자전거 탈 때 | 22 |
| 동기부여 | 2 | 대중교통 이용시 (워크맨, MP3) | 4 |
| 편안함/스트레스해소/ | 2 | 식사 때 | 12 |
| 평온/위안/이완/스트레스 경감 | 8 | 사고 시 배경음악 | 4 |
| 분위기 고조 | 8 | 성적/낭만적 사건 | 4 |
| 현재의 분위기에 맞추기 | 6 | 책 읽을 때 | 6 |
| | | 잠자기 위해서 | 14 |

슬롭보다와 오닐의 연구는 영국인 69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기초로 한 것이기에 우리나라의 문화적 환경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연구결과를 통해서 음악이 우리의 개인적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다양한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대략 알 수가 있다. 즉, 대부분의 사람에게 음악은 주로 혼자서 하는 개인적인 활동들의 고취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음악은 사회 속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특정한 기능(역할)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존재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역할을 하며 우리주변에 편재해있다. 하지만 우리는 음악의 존재 이유나 음악의 기능을 심각히 생각해보지 않는다. 그저 공기처럼 늘 우리 곁에 있어왔기 때문에 도리어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의 생각은 음악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인간의 삶에 큰 지장이 없는 그저 치즈케익과 같은 후식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이유에서 오늘의 주제인 음악이 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지 또 그리고 우리의 건강한 삶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20세기 후반에 들어서야 본격화되었다.

음악은 근본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일까? 음악이 인간의 건강과 행복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음악이 오락을 넘어서서 치료적 기능을 가질 수 있을까? 현대의 연구는 음악이 인간에게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 삶의 본질을 이루며 음악을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만들어 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음악의 기능과 효과

미국의 문화인류학자인 메리엄(A.P.Merriam)은 다양한 문화를 연구한 후 음악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문명에 존재한다고 말하며 “아마도 음악처럼 인간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활동을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사회 안에서 음악이 사용되는 이유와 방법은 수도 없이 많지만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공통된 음악의 기능을 메리엄은 다음의 열 가지로 정리하였다.

- 1) 음악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을 쉽게 표현하도록 해준다. - 일제시대의 아리랑, 사랑고백
- 2) 음악은 미적인 즐거움을 더해준다. - 음악 감상, 연주회 음악
- 3) 음악은 오락의 방법으로 제공된다. - 대중가요
- 4) 음악은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으로 이용된다. - 시대와 문화, 교육적, 사회적 배경 하에서
- 5) 음악은 상징적 표현으로 제공된다. - 생일축하, 애국가
- 6) 음악은 신체적 반응을 유발시킨다. - 행진곡, 체조, 노동요
- 7) 음악은 사회규범과 관련된다. - 새마을 노래, 교가
- 8) 음악은 가치를 나타내거나 각 시대의 심리현상을 표출한다.
사회 규범과 종교 의식을 확인시킨다. - 친목단체의 노래, 교회청소년 그룹의 노래 등
- 9) 음악은 사회와 문화의 연속성에 기여한다. - 50, 70년대 가요, ...
- 10) 음악은 사회의 통합에 기여한다. - 집회노래, 새마을 노래, (월드컵 박수응원 “ 짹 짹 짹 짹 ”)

도민이 행복한 제주 만들기

메리엄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어떤 문화에서든 음악은 인간에게 신체적(생리적), 사회적, 심리적, 미적, 인지적 기능을 발휘하며 인간의 삶을 동반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즉, 음악은 개인을 사회에 융화시키고(소속감, 일체감), 개인의 내적 감정을 유발하거나 표출하여 정서적 조절을 가능하게 하며, 미적 체험을 통한 행복감(만족감, 카타르시스)을 주며, 육체적인 힘든 일도 어렵지 않게 해주는 것 등이 그 예에 속한다.

슬롭보다와 메리엄의 연구를 기초로 일상생활에서의 음악의 기능 중 중요한 몇 가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1) 인지적 촉진 (지나간 사건의 기억 촉진/ 모차르트 효과/집중력향상)
- 2) 정서적, 심리적 상태의 조절 (스트레스 조절/즐거움 유발/평온/이완/위로 등), 절정경험 (흥분/소름/전율)
- 3) 사회적 기능 (소속감/의사소통)
- 4) 신체적, 생리적 조절 (잠 깨기/잠자기/긴장이완/근육긴장과 이완/심장활동조절 등)

이렇게 음악이 가지는 다양한 기능은 현재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간단한 예로 음악을 듣고 까맣게 잊고 있었던 옛 기억이 쉽게 되살아난다면 치매 노인의 기억 쇠퇴를 지연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만일 노인들의 기억 속에 잠재되어 있는 노래를 사용하여 노래와 연관되어 있는 기억들을 연쇄적으로 되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분야의 연구는 의학과 음악치료 학계에서 활발히 연구되어 다양한 방법으로 실제 임상에 적용되고 있는 상태이다. (예: 양희은 상록수, 자신 만의 기억에 있는 음악(애인과 헤어졌을 때, 사랑했을 때, 고등학교 때 배운 노래...) 그 뿐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에도 ADHD(과잉행동장애) 아동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 아동들의 특성 중 하나가 주의집중력의 부족이다. 주의집중력은 인간생활의 기본기재일 뿐 아니라 학습의 기본기재로 아동시기에 아주 중요한 능력이다. 예를 들어서(핸드 벨과 같은) 악기를 번갈아 연주하는 합주 활동 같은 것은 아동들이 쉽고 즐겁게 따라 할 수 있지만 자기 순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고도의 주의집중을 요구하기 때문에 아동은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합주를 함께하며 즐겁게 주의집중력 향상을 꾀하게 된다. 이때 자기의 충동을 조절해야 하는 상황이 동반되기 때문에 주의집중 뿐 만 아니라 자기조절 능력 또한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또한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감정조절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과격한

행동을 보이게 된다. 예를 들어서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의 경우 평소에는 그것을 억누르고 표출하지 못하여 이상행동을 하게 되는데 드럼과 같은 악기의 연주는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표출하고 이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내적인 힘을 강화시킴으로써 자기인식과 자기통제력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이런 악기 연주는 자신에 대한 만족감과 성취감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쉽게 제공되기 때문에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에 도움을 준다. 합창활동을 통한 소속감과 음악을 완성시켜나가는 동안의 성취감과 만족감, 미적 체험은 소외되거나 고립되어 사회적 지지를 얻지 못하여 힘들어 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소속감을 느끼게 만들 수 있는 좋은 중재도구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우리는 우울하거나 슬플 때 위로 받고 싶어서 음악을 많이 듣는다. 일반적 심리학 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우울하면 그 기분을 상쇄하려고 그 반대 정서를 유발시키는 행동을 한다. 그 반면 유독 음악에서만은 슬플 때 슬픈 노래를 듣는다. 왜 그럴까? 음악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고통이 이해 받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애인과의 이별과 같은 고통과 슬픔은 매우 개인적이고 은밀하기 때문에 남들과 공유하기 힘들기 때문에 유사한 고통을 겪은 타인의 고통의 노래에서 공감과 이해와 위로를 받게 된다(동질성의 원리). 그러나 음악은 단순한 공감과 이해를 받는 느낌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카타르시스를 통해 그 고통의 감정으로 해방되어 치료의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 뿐 만 아니라 메리엄이 음악의 기능으로 설명한 첫 번째는 ‘음악은 인간의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감정을 쉽게 표현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의사소통 수단으로 언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즉 말로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러 가지 갈등으로 대화의 문을 닫아버리거나 대화를 하고 싶어도 말이라는 도구로는 더 이상 소통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경우 음악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쉽게 감정을 드러내도록 하고 대화의 문을 열게 해준다. ‘음악 속에서의 대화’, 즉 노래심리치료에서 사람들은 음악에 가사를 즉흥적으로 넣어가며 자신의 감정을 쉽게 드러내고 서로를 이해하는 자연스러운 순간을 만들어 간다.

일단 음악이 우리의 건강과 행복은 위해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더 자세히 하기 전에 인간이 어떤 조건에서 건강을 잃거나 행복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메슬로우의 욕구이론을 살펴본다. 그리고 나서 메슬로우의 이론에 기초하여 음악이 어떻게 인간의 욕구체계에서 개입하여 인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본다.

3. 메슬로우의 욕구이론과 음악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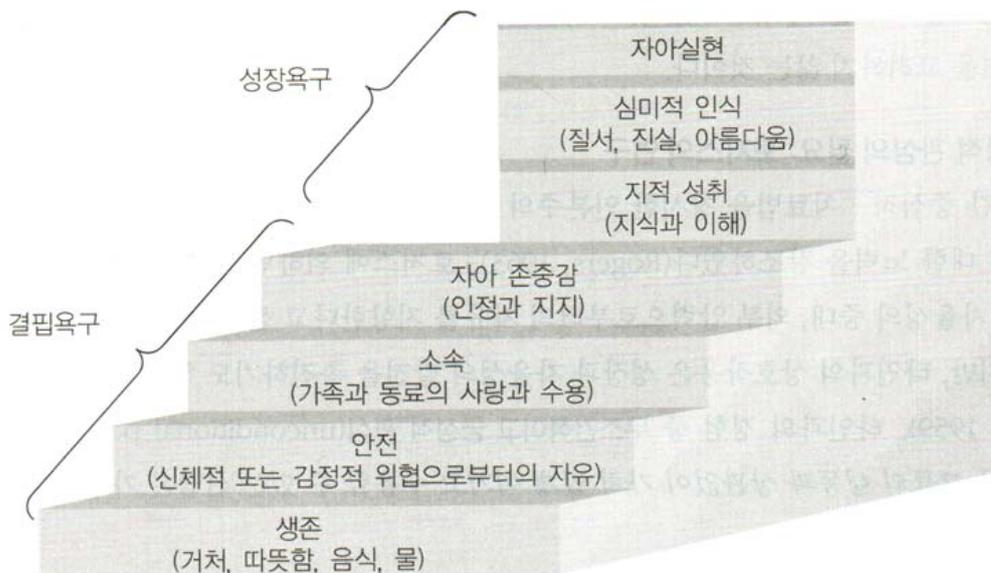
1) 메슬로우의 욕구이론

인본주의 창시자인 메슬로우(Abraham Maslow)는 인간이 전인적으로 발달하기 위해서는 일곱 가지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 일곱 가지 욕구를 반영하는 피라미드식의 위계를 개발하였다. 일곱 가지 욕구는 표 2에서와 같이 생존의 요구, 안전의 욕구, 소속감에 대한 욕구, 자아존중감의 욕구, 지적 성취의 욕구, 심미적 인식의 욕구 그리고 자아실현의 욕구이다. 메슬로우는 이 일곱 가지의 인간의 욕구를 '결핍'과 '성장'의 욕구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결핍욕구(deficiency needs)'는 그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을 채우도록 하는 욕구이다. '성장의 욕구(growth needs)'는 '결핍욕구'가 충족될 때야 비로소 생기는 욕구로 인간이 자신을 확장하고 성장시키고 싶어 하는 욕구라고 할 수 있다.

이 피라미드의 기초에는 생리적 욕구인 생존의 욕구가 자리하고 있는데('육체적 인간') 이것은 인간의 삶의 기본적 조건인 의식주의 문제에 관련된 것이다. 그 다음에는 안전에 대한 욕구 가자리잡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안전에 대한 욕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위협받지 않고 싶다는 욕구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 때문에 학교 가기 싫어하는 것은 신체적 안전에 대한 욕구 때문일 수 있지만 실제 신체적 폭력을 당하지 않아도 심리적으로 학교가 안전한 곳이 아니라고 느끼면 학교에 가기 싫어질 것이다. 생존과 안전에 대한 욕구가 충족될 때야 비로소 인간은 사회적 욕구인 소속감을 원하게 된다('사회적 인간'). 소속감이란 가족과, 동료, 사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으로 이것은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사랑받고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욕구라고 할 수 있다. 만일 학교에서 왕따를 당할 경우 학생들은 생존의 위협으로 느끼게 되고 심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사회적 소속감은 생존의 문제인 결핍의 욕구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 단계의 욕구는 자아존중감에 대한 욕구이다. 자아존중감이란 남이 아닌 자신이 자신의 특성, 능력, 행동에 부여하는 가치로 자신을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싶은 욕구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이 네 가지 욕구들(생존, 안전, 소속, 자아존중감)이 충족되지 않을 때는 인간의 생존이 위협받게 되고 이렇게 인간이 인간의 삶의 기본적 문제에 대처하거나 해결하지 못할 경우 문제가 일어난다. 이런 경우는 어떤 형태로든 인간은 불행하다고 느끼고 신체적, 정신적(심리적), 사회적 건강상태에서 문제가 유발된다.

그 반면 성장의 욕구는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전인적 인간으로의 성장하려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에 대한 것이다. 성장의 욕구에는 지식과 이해에 대한 지적성취욕구와 진실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심미적인식의 욕구와 자아실현의 욕구가 포함된다. 결핍되면 해소되는 결핍의 욕구와는 달리 성장욕구는 충족되지 않는 욕구이다. 한 예로 사람들은 문학에 대한 이해가 늘어나면 날수록 문학에 대한 관심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한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배움에 대해 만족할 줄 모르는 욕구를 가졌거나 비용대비 효용가치라는 측면에서 볼 때 큰 욕구를 유발시키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음악이나 미술에 결코 싫증을 내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그의 피라미드의 정점에는 자아실현의 욕구가 자리하고 있다. 그는 자아실현이론을 인간이 추구하는 질적인 만족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자아실현의 중요한 경험인 절정경험은 감각적,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예술적 그리고 영적인 연결을 경험하게 하며 존재의 내면적 가치를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메슬로우는 모든 사람은 자아실현을 하려고 노력하고 이들의 1%만이 진정으로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자아실현을 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과의 피상적 관계보다 몇몇 사람과의 깊은 관계를 더욱 발전시킨다. 그리고 이들은 흥분, 행복, 통찰력으로 특징지어지는 절정경험을 가지고 있다. 절정경험(peak experience)이란 개념은 메슬로우로부터 시작되었다. 결국 메슬로우의 욕구이론의 일곱 가지 욕구가 다 채워진다면 인간은 전인적 인간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생각할 수 있다. 메슬로우는 한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충족감과 의미를 찾지 못할 때 감정적 장애가 생긴다고 강조한다.

<표 2> 메슬로우의 욕구위계도



2) 음악과의 관계

그럼 이러한 매슬로우의 일곱 가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음악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만일 이것이 가능하다면 음악은 인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첫 번째 욕구인 생존의 욕구를 생각해보자. 음악은 의식주를 제공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음악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음악은 심장박동을 조절하고, 면역체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명의 유지를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응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두 번째 단계인 안전의 욕구부터 마지막 단계인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음악은 여러 다양한 형태로 이 욕구들을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안전의 욕구를 생각해보자. 음악은 감정적으로 위협 받고 있다고 생각하여 힘들어 하는 사람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여 이들의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즉흥연주와 같은 음악활동은 맞고 틀림이 없는 활동이다. 만일 음악을 이끌어주는 사람이 (음악교육자, 음악치료사 등)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 옆에 언제나 함께 있어주고 그들의 음악활동을 계속적으로 보호하고, 존중하고, 수용하고, 이해해 주면 그들은 자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소속의 욕구는 사회적 관계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욕구이다. 현대 사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소외와 고립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는 점점 개인화되어 가고 그 속에서 개개의 인간은 고통 받고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려는 개인적 노력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 가족과 동료(친구)의 사랑과 수용을 의미하는 소속감은 원만한 대인관계 (가족관계, 또래관계 등)의 중요한 요인이다. 함께하는 음악 속에서 사람들은 쉽게 하나가 됨을 느낀다. 설사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원래 몰랐거나, 서로 나쁜 감정을 갖고 있었을 경우까지도 그러하다. 메리엄이 “음악은 사람을 초대하기를 장려하는 특성을 지녔다”라고 한 것처럼 음악활동은 누구나 쉽게 참여가 가능하고 또 그러기를 장려한다. 무대 위의 록밴드의 공연을 상상해보라. 그 것을 듣는 사람들은 함께 몸을 흔들고 노래를 따라 부르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쉽게 한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리고 이런 행동을 그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더 많이 참여할수록 사람들은 더 즐거워한다. 어떤 형태의 음악활동이든지 함께 만들어 나가는 활동은 큰 저항감 없이 소속감 즉 수용을 느끼게 하는 환경을 제공한다. 합창은 다양한 음악활동 중에서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는 중요한 활동으로 유아원 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나이에 상관없이 적용

될 수 있는 활동이다. 합창 단원들끼리 서로 지지해주는 가운데 자신이 합창단원으로 서 가치 있는 기여를 하고 있다는 느낌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다. 이렇게 아무런 경제적 가치를 따지지 않고 즐겁게 참여하면서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합창활동이야말로 현대 사회의 소외된 외로운 사람들에게 결핍된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음악은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앞에서 자아존중감이란 남이 아닌 자신이 자신의 특성, 능력, 행동에 부여하는 가치로 자신을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싶은 욕구라고 하였다. 낮은 자아존중감의 원인은 다양하고 그것의 해결 방법도 단순하지는 않지만 일단 자신감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는 성공의 경험이 중요하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경쟁사회로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일등부터 꼴찌까지 서열을 메기는 사회에서는 성공보다는 실패를 경험할 확률이 더 높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음악 활동에서는 더 잘하고 더 못하는 방식의 평가를 배제하면서도 쉽고 즐겁게 성공의 경험을 할 수 있다. 이 때 음악활동 속에서 기여한 자신의 음악적 행동이 음악의 완성에 기여하고 타인에 의해서 지지 받을 경우 성공의 경험은 강해지고 자아존중감도 증진된다.

음악도 지식의 한 분야로 음악을 이해하고 지식을 쌓아가는 것은 인간의 중요한 성장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음악이야말로 심미적 인식과 심미적 체험을 그 존재 기반으로 하는 예술의 한 종류로서 인간의 심미적 욕구를 채워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 사람들이 왜 비싼 돈을 주고 콘서트홀을 찾는지를 보면 인간의 미적 체험에 대한 욕구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다.

음악은 절정경험을 통한 자아실현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 음악은 모든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음악아(music child)를 만나고 장애와 같은 기능적 한계를 포함하여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절정경험은 보통 소름 끼침과 같은 생리적 반응을 동반한 흥분과 행복의 느낌 그리고 더 나아가 삶에 대한 통찰력을 주는 경험으로 우리는 음악을 경험하며 쉽게 이런 소름 끼침을 경험한다.

4. 나가는 말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음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강력하게 우리의 삶에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것은 음악이 신체적(생리적), 정서적, 심리적, 인지적, 사회적 측면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아 생명을 위협받는 사람의 수는 많지 않지만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핵가족화로 인한 세대 간의 갈등과 소통의 부재는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우리사회의 해결과제임에 틀림없다. 특히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가족을 이루면서 가족 내에서 또 가족 밖의 사회에서 겪는 소외와 부적응 그리고 이로 인한 우울, 분노, 폭력성, 낮은 자아존중감과 같은 심리-정서적 문제는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여야 하는 분야이다. 음악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치료적 요소를 갖고 있다. 음악이 가지고 있는 리듬, 선율, 화성 등과 같은 개별적 요소들이 치료적 도구로서 사용될 수도 있고 음악경험이나 음악참여 자체가 치료적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음악의 어떤 특성을 이용해서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음악은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기를 원하며 우리를 기꺼이 음악의 세계로 초대한다.

【참고문헌】

- Eggen, Paul · Kauchak, Don, Educational Psychology. 6th edition, 2004. 신중호 외 6명 공역. 『교육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6.
- Radocy, Rudolf E. & Boyle, J. David. Psychological Foundation of Musical Behavior. 1997. 최병철 · 방금주 공역. 『음악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1.
- Sloboda, John A. and O'Neil Susan A. "Emotion in everyday listening to music." In Music and Emotion. Edited by Patrik N. Juslin and John A. Sloboda, 415-429.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 정현주. 『음악치료학의 이해와 적용』.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6.